제 4 강 인식론(비판철학)

※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유산

1) 이성주의에 대해

- 본유관념설, 논리적 무모순성의 진리의 조건을 간주
- 경험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
- 무모순성(모순율)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2) 경험주의에 대해

- 백지설, 감각경험을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
- 흄에서 나타나듯 회의론으로 귀결, 즉 진리의 보편타당성을 부정하는 결과 초래

3) 칸트가 처한 상황

- 진리의 보편타당성과 경험세계에 대한 타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뉴튼 과학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체계로 인정: "어떻게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보편타당한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해명해야 함

※ 칸트의 비판철학

1. 칸트의 철학적 문제 제기

인간은 무엇인가?

-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2. 'Kritik der reinen Vernunft'의 의미

① Kritik: '이성 능력 일반에 대한 비판' = "형이상학 일반의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가능할 수 있는 형이상학의 원천.범위.한계 등의 규정을 의미"

재래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분류:칸트에 의한 형이상학의 취급

일반 형이상학(존재론):초월적 감성학(Ästhetik)과 분석학(Analytik)

특수 형이상학:초월적 변증학(Dialektik)

- 이성적 자연학: 이성적 영혼론- 순수이성의 오류추리(Paralogismus)

이성적 물리학 물체론(Körperlehre, Anfangsgründe의 작업)

- 이성적 우주론- 순수이성의 이율배반(Antinomie)
- 이성적 신학- 순수이성의 이상(Ideal)

- 형이상학의 원천: 이성능력 일반, 칸트의 경우에는 선험적(a priori) 인식능력을 지칭
- 형이상학의 범위: 상기 도표 참조.(인식능력의 분류와 관계됨=목차와 관계됨)
- 형이상학의 한계: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은 불가능하고 이성비판이라는 의미에서만 가능

② rein: '경험과 섞이지 않은' ,cf) a priori: '경험 이전에 = 단적으로 경험과 독립한'

③ Vernunft : '인식 또는 사유능력 일반'
- 이론인식(학적인식)의 능력: 지성(Verstand)
- 추론(추리)능력: 사변이성(spekulative Vernunft); 원칙들에 의거하여 보다 더 기원적인 제약들에 이르기까지 소급하여 가는 능력
- 실천이성(praktische Vernunft)

3. 『순수이성비판』의 구성
-『순수이성비판』: Ⅰ. 초월적 원리론, Ⅱ. 초월적 방법론(훈련, 규준, 건축술, 역사)
- 초월적 원리론: 초월적 감성론(시간론, 공간론), 초월적 논리학
- 초월적 논리학: 초월적 분석론, 초월적 변증론(우주론, 영혼론, 신학)
- 초월적 분석론: 개념의 분석론, 원칙의 분석론
* 개념의 분석론: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판단표에서 범주표를 도출함), 초월적 연역
* 원칙의 분석론: 도식론, 원칙론

4. 중심 개념 및 주제
① 비판철학=초월철학
"대저 나의 이론바 〔초월적〕 관념론은, 사물의 존재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사물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것이 보통 의미의 관념론이다). -사물의 존재를 의심함은 나에게는 생각조차 안하는 것이기에- 나의 관념론은 사물의 감성적 표상에 관계하는 것이다. 〔....〕 그런데 '초월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물 자체에 대한 우리 인식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식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초월적이라는 말은 오해를 당연히 방지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이 금후에도 오해를 일으키기 전에 나는 이 명칭을 내버리고 나의 관념론이 '비판적 관념론'이라고 불리어지길 바란다."(프롤레고메나, 번역본 293-4)
- transzendental: "대상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관한 우리의 선험적인 개념들

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나는 초월적이라고 한다."(A12, B26)

따라서 초월철학 또는 초월적 관념론이란 대상에 관계하는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능력들에 대해 규명하는 철학을 말하고, 선험적인 인식능력들에 대한 규명은 곧 인식능력 일반에 대한 비판을 통해 확보되므로, 초월철학과 비판철학은 칸트에게는 등가어이다.

②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재판의 머리말에서 칸트가 소위 "학의 안전한 길"에 대해 말하면서 거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간단하게 정리하지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과학사에 나타난 그대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천문학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천동설은 '보이는 대로' 천문학적 현상을 기술한 것이고, 지동설은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이 비유가 거꾸로 된(잘못된) 비유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즉 칸트의 철학은 "있는 그대로(존재적)"에서 "보이는 대로(존재론적)"의 전환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천동설은 태양중심설, 즉 신적 관점을 비유하는 것이고, 지동설은 지구중심설, 즉 인간의 관점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재래의 형이상학적 관점(신적 직관의 관점)에서 칸트적 형이상학의 관점(인간적 직관의 관점)으로의 이행에 적합한 비유가 됩니다.

③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칸트를 거론할 때 항상 마주치는 문제가 바로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한가?'이다. 이 내용은 '들어가는말(초.재판 모두)'에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a piori라는 말과 a posteriori라는 말, 그리고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에 관한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어의 개념에 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죠. 그럼 전자는? 이것은 인식의 기원에 관한 문제죠. 즉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냐 아니냐(즉 주관에서 유래한 것이냐)? 전자는 후험적, 후자는 선험적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다 중요한 구분은 '순수한(rein)'과 'a priori'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동일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다르다. 이 양자는 인식의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 즉 전자는 "선험적 인식들 중에서 경험적인 것이 전혀 섞여있지 않은 인식"(B3)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그 원인을 가진다"는 명제는 물론 선험적 종합판단이고 따라서 선험적인 명제이기는 하지만, 순수한 명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 순수한 선험적 종합명제는 있는가? 칸트는 순수 기하학과 순수 수학의 명제들이 이런 종류의 명제라고 한다(B14-15참조). 따라서 다소 거칠게 말하면 순수기하학과 수학의 명제들은 순수한 선험적 종합명제이고, 순수물리학의 명제들은 선험적 종합명제(B17)라고 할 수 있다.

- 분석적 : 종합적 - 언어철학적 지평: 주어개념이 술어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

선험적 : 후험적 - 인식론적 지평: 인식의 기원이 주관에 있는가 대상(객관)에 있는가
필연적 : 우연적 - 존재론적 지평: 존재자들이 상호 관계 맺는 양상

④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소위 '학의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즉 흄에 의해 붕괴된 듯한 학문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학문의 가능성은, 즉 회의론이 타당할 수 없는 근거의 시발점은 바로 우리에게 논리학, 수학, 물리학과 같은 안전한 길을 걷는 학문들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연후 무엇이 (회의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안전한 학문을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흄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험으로부터는 어떠한 안전한 학문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제 남은 유일한 길은 바로 주관으로부터 유래하는 근거를 찾는 것뿐이다.

= 합리론(독단론)의 전제적 통치로부터의 부당성을 고발함(이는 사실 경험론이 한 작업이다)과 동시에 회의론으로부터 철학(진리)을 구제하기 위함

Ⅰ. 초월적 감성론

1. 기본 개념

① 직관(Anschauung): 신적인 직관(지적 직관, 본원적 직관, intuitus originarius)과 인간적인 직관(감성적 직관, 파생적인 직관, intuitus derivativu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칸트는 인간에게는 신적인 직관의 능력은 없다고 본다. 즉 감성적 직관만이 가능하다. 감성적 직관은 오직 대상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자극(촉발)해야만 비로소 표상을 얻게 되는 그런 직관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얻은 표상이 곧 그 대상의 본성이나 본질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관은 아니다. 직관은 경험적 직관과 순수직관으로 구분된다.

② 현상: 경험적 직관의 무규정적 대상, 현상의 질료(감각)와 현상의 형식(시공)으로 구분.

③ 감성론(Aesthetik): 이 말은 유의해야 한다. 초판에서는 희랍어 aisthesis(지각작용)의 의미대로 오직 인식에 있어서 감각을 수용하는 능력으로만 정의했고, 그래서 『판단력비판』에서 사용하는 "미감적 판단(das aeshtetische Urteil)"이라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바움가르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으나, 재판에서는 그 입장이 바뀐다. 즉 "취미의 주요한 원천으로 보아서 경험으로부터 온다"에서 "주요한"이라는 말을 재판에서 첨가하고, 또 초판에서는 에스테틱이라는 명칭을 오직 감성론에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놓고서는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명칭을 사변철학도 사용해서 때로는 초월적 의미로 때로는 심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B36)라고 첨언한다. 즉 취미의 어떤 원천은 경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선험적인 것)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 초월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여, 취미판단에 관한 학의 명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인한다. 즉 초판과 재판이 "취미비판"과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④ 경험적 실재성과 초월적 관념성

공간과 시간이 이미 순수직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공간과 시간의 특성을 정리한 후 경험적 실재성과 초월적 관념성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간과 시간은

1. 외적 경험에서 추상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대상의 비교 지각을 통한 것이 아님.
2. 모든 외적 직관작용의 근저에 있는 필연적인 선험적 표상이다.
3.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공간과 시간이 직관임을 강조하는 것.
4. 주어진 무한한 크기라고 표상된다.

이러한 시공개념을 통해 획득되는 결론이 바로 저 유명한 '사물 자체'이다. 인간의 감성적인 조건상 항상 순수직관의 형식인 시공을 통해서만 대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인식주관과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한다하더라도 인식주관은 그것을 그것 그대로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물자체'는 인식은 불가능한 대상을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무엇이 우리에게 현상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모른다하더라도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물 자체'는 그 자체로 인식 대상인 현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현상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자체의 영역을 "초험적(transzendent)"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시공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즉 주관이 만들어내는 관념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시공은 "초월적(transzendental)"으로는 관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험은 오직 시공의 직관형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항상 실재한다고 말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경험적 실재성과 초월적 관념성"이다. 여기에서 '초월적'은 결국 '초험적'을 의미한다.

⑤ 칸트 철학의 존재론적 도식

Transzendenz

Immanent - ausserTranszendental

inner

제 2 부 초월적 논리학

1. 심성의 두 기본 원천

1) 감성: 인상의 수용성,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방식에 촉발되는 한에서 표상을 받아들이는 심성의 수용성”(B75)

감성론: 감성 일반의 규칙들에 관한 학문

2) 지성: 개념의 자발성, “표상 자신을 산출하는 능력 즉 인식의 자발성”(B75)

논리학: 지성 일반의 규칙들에 관한 학문

“이 두 가지 성질은 우열이 없다. 감성이 없으면 대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성이 없으면 대상은 도무지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B75)

※ 합리론자의 표상 및 인식능력에 대한 구분과 칸트의 비판

표상(representatio, Vorstellung)

모호한(obscura, dunkel) 표상명석한(clara, klar) 표상

혼란한(confusa, verworren) 표상판명한(distincta, deutlich) 표상

이제 표상에 대한 이러한 구분에 입각한다면, 이성은 대상에 대한 명석`판명한 완전한 인식능력을 말하고 감성은 혼란된 인식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 구분에 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감성적 인식은, 그것들이 혼란된 것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한에 있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유에서 감성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지성적 인식이 지성적인 것은, 그것이 판명하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서부터 생겨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적 표상이 혼란되고, 감성적 표상이 판명한 일도 있을 수 있다.(Vorlesungen über Metaphysik und Rationaltheologie, AK. Bd.Ⅴ(28.1), Häfte Ⅱ, Teil.3,

S. 229)

2. 분석론과 변증론의 구분

가. 진리란 무엇인가?

- 이전의 답변: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이다.”
- 모사설(대응설)의 한계: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진리의 논리학과 가상의 논리학

- 분석론=진리의 논리학, 초월적 논리학에서 지성의 순수한 인식의 요소들을 다루는 부문. 지성의 경험적 사용을 비판하는 데에 대한 규준.
- 변증론=가상의 논리학 “ 허나 모든 우리의 인식에.....변증론이라고 한다.”(B85)

변증론은 인식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인식의 형식적 조건만을 가지고 지식의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전의 철학자들이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식들이 바로 신, 영혼, 우주에 관한 지식, 즉 특수 형이상학의 주제들이다. 칸트는 이를 가상의 논리학이라 명명하면서, 논리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는데, 이는 오직 ‘변증적 가상에 대한 비판’으로서 논리학에 속하는 것일 뿐, 진리의 논리학은 아니다.

3. 초월적 분석론

- 분석(Analitik): “내가 ‘개념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오성능력 자신의 분해다.”(B90)
- 분석론의 갖추어야 할 요건

1. 개념은 순수한 개념이어야 한다.
2. 직관과 감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지성에 속해야만 한다.
3. 기본적인 개념이요, 파생된 개념 또는 합성된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

예) 순수개념: 인과성, 파생개념: 힘, 동작, 수동 등의 언표양식, 합성개념: 페가수스 등

4. 범주표(개념에 관한 표)는 완전하고, 순수한 지성의 전범위와 합치해야 한다.

⇒ 학문의 완전성: 지성의 선험적 인식의 전체라는 이념과 이 전체의 일정한 분류와 이 개념들을 일정한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

⇒ 학(Wissenschaft)이란 오직 체계를 통해서만 성립하고 그 체계는 완전해야 함을 의미.

4. 범주론: 판단표와 범주표에 관해서는 강의내용 참조

5.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 왜 판단표(분석)과 범주표(종합)는 근본적으로 동일한가?

- 종합: “서로 다른 표상들을 모아서, 표상.....”(B103)

- 분석: 서로 동일한 표상들을 모아서 하나의 표상(개념)을 형성하는 작용, ‘각종의 표상들을 하나의 개념 아래에 귀속시키는 작용’(B104 참조)

⇒ 분석적 통일과 종합적 통일

예1) 흰 종이, 하얀 눈, 우유 등등에서 ‘흼’이라는 개념을 산출하는 것=‘흼’이라는 개념하에 각종의 표상을 귀속시키는 것=분석적 통일

예2) 희고 정방형이고 짭잘한 것 등의 표상을 ‘소금’에 귀속시킴=서로 다른 표상을 모아 하나의 개념(인식)을 형성하는 것=종합적 통일

⇒ 분석적 통일은 일반논리학과 관계하고, 종합적 통일은 초월논리학에 상관한다.

- “판단이 포함하는 각종 표상들에.....통일을 주고 있다.”(B104)

⇒판단작용과 개념작용의 근원적 동일성을 표시. 이로써 판단표로부터 범주표를 도출함이 정당화 된다. “지성은 분석적 통일에 의해서....이 동일한 지성이....다양을 종합적으로 통일함에서.....”(B105)

※ 칸트 판단표의 특징(번역본 108-110쪽)

1. 전통 판단표와는 달리 각각의 범주가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판단의 양상은 판단의 전혀 특수한 기능이다.....오직 사고일반에 관계해 있는 연어의 가치만을 다루는, 특이한 성질을 그 자신 가지고 있다.”(B110)

6. 연역론: 지성의 순수개념의 초월적 연역

1) 연역론이 갖는 철학사적(인식론적) 의의

합리론자들의 진리관은 궁극적으로 신에 의해 보증되는 독단론(이성능력에 대한 과신)이다. 하지만 이는 경험론자, 특히 흄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진다. 진리 주장의 원천은 경험에 있지만, 경험은 결코 항구적(학적) 진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만약 철학적 사유가 존재의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라면, 또는 진리라고 칭해지는 것은 어떻게, 왜 그렇게 칭해질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일이라면, 또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진정한 진리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라면, 이는 앞서 실체관의 변화에서도 보듯이 이제 칸트에 이르러서는 인식의 조건을 해명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인식의 조건상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에 의해 우리의 인식(진리주장)은 성립한다. 따라서 이제 철학적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은 “어떻게 주관에서 유래한 것을 객관에 대해 보편타당하고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즉 진리 주장의 권리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칸트는 이를 ‘초월적 연역’의 과제라고 한다.

※ 연역의 내용

1. 직관에서의 포착이라는 종합(개관, synapsis)

상상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종합 작용은 훑어봄과 모아봄임을 말한다. 상상력의 1 차 종합작용을 ‘훑어봄과 모아봄’으로 규정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① 직관작용 또는 감성에 의한 대상의 수용에 있어서 수용되는 것은 매우 개별적인 낱낱의 성질들이라는 점이다. 영국 경험론자들의 감각(또는 인상) 개념에 대한 칸트의 수용. 이는 서양 고대적 전통의 ‘봄(theoria=contemplatio)’으로부터 완전히 일탈함을 의미한다. 즉 ‘봄’을 정신의 고차적 작용이 아니라, 정신(오늘날의 용어법으로는 ‘신체’에 더 가깝다)의 저차적인 작용으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② 직관하는 순간(감각의 수용방식 그 자체)에 이미 ‘훑어봄과 모아봄’이라는 종합작용을 한다는 것은 내감이 시간적 제 규정에 종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의 종합작용이 가장 근원적인 포착작용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매 순간의 직관은 각기 다른 시간을 차지하는 직관이다. 하지만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든다는 것은 그 다른 시간을 동시(同時)로 치환함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포착이라는 종합이 선험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이한 시간을 동일한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이 때 상이한 시간은 경험에 상응하지만, 동일한 시간은 경험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개념 규정하기 이전에 단지 감각하여 대상에 대한 이미지만을 형성하는 그 순간에도 대상을 존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수용하는 셈이 된다.

2. 상상에서의 재생이라는 종합

일반적으로 재생의 종합은 기억과 연상작용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 칸트가 제시한 유명한 예를 생각해 보자. 붉은 주사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무거움(무거운 주사)이라는 관념과 연관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만약 우리가 흄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관념이 매 순간마다 다른 관념이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과거의 이미지와 동일(혹은 유사)하다는 것을 무슨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직 우리의 감각경험에만 집중한다면, 모든 감각경험은 설혹 동일한 대상을 본다 할지라도 매순간 다름을 알 수 있다. 최소한 모든 감각경험은 다른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성은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3. 개념에서의 재인이라는 종합

이제 만약 내가 '책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책상'이라고 개념규정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보고 있는 '책상'이 과거 어느 시점에 본 '그 책상'이었음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개념이라는 말 자신이 벌써 앞서 말한 우리의 견해를 암시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Bewusstsein-의식되어 있음)이야말로, 다양한 것, 순차로 직관된 것, 또 재생된 것을 하나의 표상에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번역본, 130)

이는 하나의 대상(표상)에 대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규정(인식)한다는 것은 곧 그 근원적 작용에 하나의 의식을 형성함이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범주가 활동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의식이란 범주의 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런데 범주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상이한 성질들에 대한 동일성의 규정, 즉 계사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재인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 정립됨을 말하고, 하나의 의식이 정립됨은 곧 범주에 의한 직관의 종합작용(계사작용)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일체의 것은 모두 주관의 선험적 종합활동과 직관의 다양에 대한 범주의 종합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논변의 과정을 통해 칸트는 어떻게 주관에서 유래한 것이 객관에 대해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연역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존재론의 문제는 곧 인식조건과 그 작용에 대한 해명임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 원칙론: 자연과학의 근거 해명

1. 직관의 공리 : "모든 직관은 외연량이다."

외연량: 부분의 표상이 전체의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 선

예) 'a=b 이면, a-c=b-c 이다.'는 분석명제이므로 공리가 될 수 없다.

'두 점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직선만이 가능하다.' 또는 '두 개의 직선은 어떠한 공간도 둘러싸지 않는다.' 는 기하학의 명제는 공리다.

'7+5=12': 종합명제이지만, 단칭판단이므로 공리가 될 수 없다.

2. 지각의 예취:

"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내포량, 즉 도를 가진다."

- 양의 연속성: "양에는 그 이상 더 적어질 수 없는 최소의 부분은 없다."(KrV. B211) 그러므로 점과 순간은 극한들에 불과하다. 즉 미분량에 불과하다. "이렇기에 모든 현상 일반은 연속량이 되, 직관의 면에서 본다면, 외연량이며, 순전히 지각의 면에서만 본다면 내포량이다."(KrV. B212)

- 모든 양이 연속량이라면, 모든 변화도 연속적이다. 그러므로 자연계에는 완전히 공허한 시간이나 공간은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경험으로부터는 공허한 공간 또는 공허한 시간에 관한 증명을 끌어낼 수 없다.”(KrV. B214)

3. 경험의 유추

가. 실체성의 원칙:

“현상이 아무리 변역해도 실체는 지속하고 자연에서의 실체의 양은 증감이 없다.”

나. 인과성의 원칙

“모든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에서 생긴다.”

- 실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모든 변화는 창조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 상호성의 원칙

“모든 실체는 공간에서 동시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한에서 일관된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있다.”

라.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

① 경험의 형식적 조건(직관과 개념에 관한)과 일치하는 것은 가능적이다.

② 경험의 질료적 조건(감각)과 관련하는 것은 현실적이다.

③ 경험의 일반적 조건에 의해 현실적인 것의 관련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 원칙의 분석론과 역학의 철학적 기초

원칙의 분석론 또는 넓게 보아 칸트의 철학은 당대 역학(특히 뉴튼 역학)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은 특히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라는 저서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칸트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에서 자연을 경험대상으로서의 사물들의 총체로 규정하면서, 경험대상을 다시 내감의 대상과 외감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감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다루는 학을 영혼론(Seelenlehre)이라 하고, 외감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다루는 학을 물체론(Koerperlehre)이라 하였다.

칸트는 물체론을 사물의 운동을 규정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운동론(Bewegunslehre)으로 명명한 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운동학(Phoronomie), 역학(Dynamik), 동력학(Mechanik) 그리고 현상학(Phaenomenologie)이며”, 이것은 각기 분량, 성질, 관계, 양상의 범주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물질론은 범주의 체계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의 운동론은 경험적 소여(물질의 경험적 소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운동성이다)와 그것에 대한 선험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경험과학의 대상, 즉 물리적 대상의 기초개념을 형이상학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형이상학은 인식일반의 형식적 조건을 밝힌 인식론과

는 달리, 물리학적 사유의 조건들, 즉 원리적인 기초개념들을 실질적인 대상적 사유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이론체계로서, 어떻게 경험과학적 사고가 인식의 선험적 원칙에 근거하여 경험적 소여를 자신의 인식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들로 구성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원칙의 분석론과 재래 형이상학의 정식들

- “자연에는 간격이 없다.” 예) 데카르트의 물체관: 연장성=빈 공간이 없음

⇒ 이는 칸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직관의 공리와 지각의 예취가 (외연, 내포)량이면서 동시에 연속량이라는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일 뿐 사물 자체 또는 시공 자체의 성질이 아니다. 즉 대상의 존재적 규정이 아니라 존재론적 규정일 뿐이다.

-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 연속량과 인과성의 결합. 자연의 변화는 인과적 법칙에 종속하므로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출현할 수도 없고, 비연속적인 변화 또한 있을 수 없다.

-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 실체성과 인과성의 결합. 실체는 만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속하는 것으로 상정되므로, 변화의 창조일 수가 없고(실체 자체의 생성과 소멸일 수가 없고 - 이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실체의 상태변화일 뿐이다.

- “세계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 원인없는 발생이란 있을 수 없다.

- “세계에 운명이란 있을 수 없다.”

⇒ 맹목적 필연성(무조건적인 필연성)에 대한 부정, 즉 조건지워진(원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필연성)만이 성립한다.

- “작용없는 곳에 존재없다.”

: 인과는 작용을 상정하고 작용은 작용의 실체(작용자)를 상정하게 되므로, 작용이 곧 존재를 함축한다는 주장.

⇒ 작용이나 실체는 모두 우리의 인식의 근본조건(시간적 조건)에 있어서 시간자체와 부분시간에 상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실체는 작용자가 아니라 지속자에 불과하다.